

한우덕의 차이나 워치 하이테크 대약진 운동

국가가 심판이자 선수, 첨단산업 세계 패권 중국몽 이끈다

한우덕
차이나랩 선임기자



“영국 추월하고 미국 따라잡는다”
10년 전부터 국가 역량 총동원령

미국이 기술 이전·시장 진입 막자
중, 용어도 숨기고 은밀히 공들여

반도체 지원 펀드만 138조원 규모
전기차·AI 등 세계 선두권 올라서

중국 정부가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한 건 지난 2015년 5월이었다. 딱 찬 10년, 성과는 뚜렷하다. 육성 항목 중 하나였던 전기차는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고, 로봇·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은 미국을 위협한다.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은 중국의 새 주력 수출 상품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10주년 자축 행사라도 열릴 만하지만, 그런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관영 매체에서도 ‘중국제조 2025’라는 단어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달 초 열렸던 정인대(의회)의 ‘2025 정부 업무 보고’에도 없었다. 왜일까.

마오 이후 70년 만에 ‘거국체제’ 부활
미국 때문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을 봉쇄하면서 ‘중국제조 2025’를 공격했다. 이 계획과 관련된 기업을 타깃으로 삼아 기술 이전을 차단하고, 시장 진입을 막았다. 중국은 공격의 예봉을 피해야 했다. 공식 문서에서 ‘중국제조 2025’라는 용어가 사라진 이유다.

그렇다고 내용이 없어진 건 아니다. 그들은 ‘고품질발전(高質量發展)’ ‘신질생산력(新質生產力)’ 등 다른 용어를 써가며 하이테크 제조업 육성에 나섰다. 도광양회(鎔光養晦) 전략으로 10년 칼을 갈았다는 얘기다. 전기차의 BYD, 배터리의 CATL, 반도체의 CXMT(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 휴머노이드 로봇의 유니트리, 생성형 AI의 딥시크... 그 어둠 속에서 성장한 ‘자식’들이다. 그들이 지금 서방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내일은 또 어떤 회사가 등장할지, 세계는 경계의 눈초리로 중국을 바라본다.

중국 하이테크 산업이 10년 만에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로 급성장한 근본 요인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번 정인대에서 리창(李强) 총리가 낭독한 ‘2025 정부 업무 보고’를 볼 필요가 있다. 그는 선진 제조업 육성 방안을 밝히면서 ‘신형거국체제(新型舉國體制)’라는 말을 강조했다. ‘새로운 형태의 국가 총동원 체제’라는 뜻이다. 국가가 총동원령을 내려 하이테크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선언이다. 2023년 이후 3년 연속 정부 업무 보고에 등장했다는 점에서 이 단어의 무게를 느낄 수 있다.

마오쩌둥(毛澤東) 시대를 연상케 한다. 마오는

중공업 분야 육성을 위해 거국 체제를 발동했다. 50년대 말 진행됐던 대약진 운동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중국은 철강 생산을 위해 국가 총동원령을 내렸다. ‘10년 안에 영국을 추월하고, 20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자(超英美)’라는 슬로건도 내걸었다. 중국 전역에 철강 생산을 위한 소규모 용광로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실패였다. 기차역에 쌓인 쇳덩이는 교통망을 마비시켰고, 철강 이외의 산업은 파국으로 치달았다. 게다가 때마침 불어닥친 가뭄으로 수천만 명이 기



시진핑(오른쪽) 주석이 지난 2월 17일 주요 민영기업 CEO와의 대화를 마친 뒤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신화뉴스〉

아로 사망하면서 대약진은 처절한 실패로 끝났다. 그렇게 사라졌던 ‘거국 체제’라는 용어가 70여 년의 세월을 건너 시진핑(習近平) 시대 다시 살아났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다른 점이 없지는 않다. 시 주석은 앞에 ‘신형(新형)’이라는 말을 붙였다. 여기 ‘신형’은 ‘시장의 수급을 고려한다’는 뜻. 하이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가 총동원령을 내리겠지만, 시장과 보조를 맞춰가며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핵심은 여전히 국가다. 국가가 육성 산업을 정하고, 민간과 학계를 동원하는 형태다. 물론 자금도 국가가 끌어온다. 반도체 분야가 그렇다.

중국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CXMT는 범용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밀어내고 있는, 우리에게선 치명적인 존재다. 최근에는 HBM(고대역폭메모리) 양산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와 우리 업체를 간장시키기도 했다. 2016년 설립된 이 회사 역시 ‘중국제조 2025’가 낳은 ‘자식’이다.

CXMT는 겉으로 민간기업처럼 운영되고 있다. 이사회 회장인 주이밍(朱一明)이 기업 실권자로 활동하고 있다. 알리바바·팅션·샤오미 등 민영기업이 지분을 들고 있다. 그러나 실체는 다르다. 국유·민영 연합기업, 좀 더 엄밀하게는 국유기업에 가깝다. 설립 당시 자본 4분의 3을 투자했던 ‘허페이(合肥) 산업투자’는 안후이(安徽)성 허페이시 시정부 산하 국유기업이다. 이 회사가 가진 CXMT의 자본 75%는 6차례의 증자 과정을 거쳐 대부분 다른 국유 펀드에 팔렸다. 중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한 ‘빅펀드(국가직접회로산업투자펀드)’ 역시 제2기 때 CXMT에 들어왔다. 알리바바 등 민간기업은 안정적으로 칩을 공급받기 위해 각각 소량의 지분을 들고 있을 뿐이다. 겉으로는 민간이 회사를 지배

하는 듯싶지만, 파고들면 ‘국가’라는 존재와 만나게 된다. 그게 중국 하이테크 굴기의 진실이다.

중국 반도체 산업 육성의 중추는 ‘빅펀드’다. 중국은 3차례에 걸쳐 총 6868억 위안(약 138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설계에서 생산, 패키징 등에 이르는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 확충에 투자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CXMT였고, 그렇게 성장한 CXMT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위협하고 있다.

화웨이는 구글·MS 뚫고 독자OS 보급

청년 창업을 위한 국가 펀드도 만들어졌다. 중국은 지난 6일 무려 1조 위안(약 200조원)에 달하는 ‘국가 창업 투자 유도 펀드’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AI·양자기술·바이오 등 분야 벤처기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중국에서는 창업도 공산당과 함께’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 이는 중국 ‘국가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를 그대로 보여준다. 국가는 국유기업 또는 국유펀드를 통해 시장 플레이어로 활동한다. 겉으로는 민영기업처럼 활동하는 기업도 속을 까보면 국유기업인 경우가 많은 이유다. 국가는 최소한 지분으로 민영기업 이사회에 참가해 경영에 개입한다. 미래 산업 분야 기업일수록 더 그렇다. 축구로 비유하자면 중국에서 국가는 심판이자, 선수다. 드리블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슛씩 패스도 한다. 민간의 영역에 국가가 끼어드는데 거리가 없다. 이는 화웨이가 추진하고 있는 ‘하머니OS(중국어 흥명)’ 확산 작업에도 드러난다.

디지털 운영체제(OS)는 속성상 바꾸기 어렵다. 수많은 응용프로그램이 이를 바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많은 기업이 도전했으나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에 막혀 실패했다. 그러나 하머니

OS는 달랐다. 이미 중국 전체 스마트 기기의 약 18%가 이를 채택하고 있다. 하머니OS를 깬 단말기가 10억 개를 넘겼다. 공장·학교 등 18개 분야에서 2만 개 이상의 앱이 운용되고 있다(카운터 포인트 리서치). 하머니OS가 탄생한 건 2018년, 불과 7년 사이에 이뤄낸 성과다.

역시 국가가 뒤에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 산하 조직인 ‘개방 원자 재단(Open Atom Foundation)’이 그 실체다. 화웨이는 하머니OS 소스를 모두 이 재단에 ‘헌납’한다. 재단은 산업별 적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조율하고, 해당 소스를 업계에 공개한다. 원하는 기업 누구든 가져다 쓸 수 있다. 바이두의 블록체인 플랫폼인 ‘수퍼체인’, 텐센트의 저전력 사물인터넷(IoT) 시스템 ‘타이니’ 등도 같은 방식으로 하머니OS를 쓰고 있다. ‘미국 OS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국가와 민간이 힘을 합친 모습이다. 이렇듯 신형거국체제 하에서는 국가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 구분이 애매해진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제조 역량, 기술, 시장 등이 필요하다. 이걸 다 갖춘 나라는 사실 중국밖에 없다. 그런데, 중국은 여기에 ‘정부’라는 생산 요소가 하나 더 붙는다. 정부-기업-연구(대학)이 뿔뿔뿔뿔 미래 산업을 만든다. 정책의 효율성은 더 높아진다.

중국 IT업계에는 여전히 ‘영국을 추월하고, 미국을 따라잡자!’라는 슬로건이 필력이다. 정부의 ‘보이는 손’이 산업 경쟁력을 키운다. 민간의 혁신에 의존하는 서방의 산업 발전과는 전혀 다른 궤적이다. 그러기에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기술 패권 경쟁 이면에는 체제 경쟁의 속성이 깔려있다’는 말이 나온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1958년부터 1962년초까지 중국에서 마오쩌둥 주도로 실시했던 대약진 운동 포스터.

〈중앙포토〉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